

설명절 추모관 예약제 운영

군산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하루 1000명 이내로 제한

오는 설 명절 연휴기간 추모관이 총량 예약제로 운영된다.

군산시 추모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설명절은 비대면 추모를 권장하고, 오는 2월 6일부터 14일(설명절 당일은 폐쇄)까지 유품 비치목적의 안치단 개방과 제례단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화장유골 봉안, 삼우제, 사십구제는 사용은 가능하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추모객 분산 유도를 위해 온라인 추모서비스와 총량 예약제 운영을 시행한다.

온라인 추모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이하장장정보시스템을 접속하여 신청하고,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총량 예약제 운영은 하루 1,0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행하며 예약접수는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1일 1,000명 이내로 접수를 받는다.

추모관 방문 시에는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복 착용 및 발열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손 소

독제 사용 후 최소 인원 가족단위 중심으로 간소하게 추모하고 다른 유가족 간 거리는 최소 2m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타 지역에서 방문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추모관을 방문하는 것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자제를 권고한다.

추모관 관계자는 “추모객이 급증하면 실내 밀집도가 높아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 명절 기간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온라인으로 만나는 새해 영농 실용 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 25일부터 비대면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오는 25일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관내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공통교육(음면동 순회교육)을 동영상으로 제작, 시 농기센터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시농기센터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밴드)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는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와 시 농기센터에

서 배부하고 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공통교육은 2021년 새롭게 달라진 농업정책 홍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고추 재배 기술, 농기계 안전 사용,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법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공기질불제 관련 동영상 등 9개 과정은 농업기술 전문교육으로 전

환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 시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속 될 경우 비대면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농업인들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농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고, 이번 교육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탐색해 보고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지원과 경영교육계(☎54-5241~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경찰서, 차량절도피의자 검거 폭재우 경위 유공 즉상 수여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는 21일 은파지구대를 방문해 차량절도피의자를 철거한 수색으로 검거한 폭재우 경위에게 즉상을 수여했다.

폭재우 경위는 이달 초 음식점 노상에 시동을 켜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절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피의자를 폭설로 인해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음에도 후미 등의 특징을 파악해 차종을 특정하여 신속하게 검거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 “경찰관으로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는 지난 20일 대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산대학교 인문산학 대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군산대 인문산학 대야 장학금 전달식

오일장 환경개선 등 보답으로 상인들이 300만원 기부

군산대학교 인문산학협력센터는 지난 20일 대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군산대학교 인문산학 대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군산대 LINC+사업단이 지원한 대야 전통시장 및 오일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보답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300만 원의 장학기금을 군산대에 기부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대야시장 상인회 장학금은 추진기(해양시스템전공, 3학년), 운영위원회 장학금은 손관이(무역학과, 1학년), LINC+사업단 장학금은 한대빈(간호학과 2학년) 학생에게 전달됐고, 각각 100만원 씩의 장학금이 지원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달식에는 대야시장 이종정 상인회장과 최영석 운영위원장, 강현숙 상인회 총무, 군산대학교 이현영 교수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군산대 LINC+사업단은 2018년 6월부터 대야시장 및 오일장 활성화를 위해

대야오일장개선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은 대야오일장의 캐릭터 및 브랜드 디자인과 이를 활용한 앞치마, 쇼핑백, 입간판 등의 환경개선 물품 제작 지원, 오일장 소식지 출판, 오일장의 골치거리였던 주차문제 해결 지원 등이다. 2019년도부터는 상가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 오던 달력을 하나로 통합·제작해, 비용을 절감했다. 2021년 홍보달력에는 대야종묘농약사, 태광당, 세계절꽃집 등 18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전통시장의 홍보달력을 제작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대야전통시장 상인회는 “향후에도 군산대학교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과제 수주 및 우수시장 벤치마킹 같은 지원을 통해 ‘살아나는 대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한다”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글로벌문화관 조성

익산시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글로벌문화관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의식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문화관을 오는 5월 개관한다.

글로벌문화관은 익산역과 서동시장 사이 교복거리에 연면적 1,489㎡, 지하층·지상 3층 규모로 마련된다.

이 문화관은 다문화 이해 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조성된다.

문화관에서는 각국의 문화에 대한 관람과 함께 전통의상·문화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와 요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 119구조대 수난사고 대비 구조훈련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1일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금마저수지 일대에서 동계수난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해빙기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난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수중탐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눠 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21일 119구조대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금마저수지에서 동계잠수장비 관리, 기체관리 및 수중의사소통, 빙상구조론, 수중기분훈련, 수중탐색 및 구조자 인양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훈련했다.

향후 익산소방서 구조대는 최첨단 수중장비 등 특수수난구조장비를 활용해 수난사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역량 강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머쉬라인, 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건강식품 표고로 식품제조 공장 설립 31억원 투자

익산시는 21일 표고버섯을 활용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머쉬라인(주)과 전북도·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창업한 머쉬라인은 표고버섯을 활용, 장조림과 간장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총 3,359.9㎡(1018평) 부지에 약 31억원을 투자한다.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경우 19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업체는 기능성 표고를 원료로 한 식

품제조를 위한 공장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갖고 있는 원료수급, R&D지원시설, 인적네트워크, 판로·수출 등 지원제도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기능성 표고 기반 식품을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벌써 2개 식품기업이 투자협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투자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